

# ‘설 연휴 일주일 앞인데’...소비심리 여전히 위축

### 고물가·경제 불황 장기화 일부 과일·성수품 가격 강세 정부, 할인 지원 품목·규모 700억 확대 등 총력 대응

고물가와 경제 불황 장기화로 인해 설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부 과일 선물 세트와 성수품 가격 강세 등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여전히 위축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설 성수기 물가 안정을 위해 할인 지원 규모를 7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상 품목을 31개로 늘리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19일 오전 광주 서구 한 전통시장에서는 사과 10kg 한 상자에 6만원, 배 10kg 한 상자는 6~7만원에 각각 판매되고 있었다. 업주는 지난해 설과 추석에 비해 약 20~30% 이상 비싸게 팔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인근 한 백화점 과일 선물 세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시된 사과, 배 과일 선물 세트 중 10만원 미만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소비자들은 “정부가 설명

절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했다고 하는데 선물 챙기기는 여전히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일부 성수품 가격도 강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광주지역 배추 소매가격은 지난 17일 기준 한 포기 4천500원으로 전년(3천410)보다 32.0% 올랐다. 평년 가격은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이다.

같은기간 무는 한 개는 2천905원으로 전년(1천843원)보다 57.6% 비싸다. 수산물 중에서는 ‘국민 생선’ 고등어(국산 염장·중품) 한 손에 7천400원으로 전년(3천941원)보다 87.7% 비싸고 물 오징어(연근해·냉장) 한 마리는 7천263원으로 전년(6천918원)보다 4.9% 오른 수준이다.

마른 멸치(대멸)는 100g에 2천367원



‘이지픽업’ 선물 세트 선보이는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이 명절 연휴를 앞두고 간편하게 들고갈 수 있는 소포장 ‘이지픽업’ 선물 세트를 확대해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모델들이 ‘이지픽업’ 선물 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으로 전년(2천136원)보다 10.81% 높다. 큰감·중품)은 열 장에 1천500원으로 전년(938원)보다 59.91% 비싸다. 농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라 설 차례 상 비용도 작년보다 더 드는 것으로 조

사됐다.

정부 할인 지원과 대형마트의 할인 판매가를 모두 반영한 aT의 지난 14일 조사에서 설 차례상 준비 비용은 평균 20만3천349원으로, 1년 전보다 3.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설 차례상 비용이 작년보다 비싼 것으로 집계돼 애초 계획보다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제로페이 농항 상품권을 68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규모를 6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확대하고 할인 지원 대상 품목도 28개에서 31개로 늘렸다.

이와 별개로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설 성수기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국내 주요 식품기업 16곳과 함께 대규모 할인전을 열고 장류, 두부 등을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했다.

대한민국김치협회도 대상, CJ제일제당 등 24개 회원사와 함께 김치를 30~50% 할인해 판매한다. /안태호 기자

## “V13 기대”...광주은행, KIA타이거즈 우승 기원 예·적금 출시

### 예금 최고 금리 연 3.15%...적금 최대 100만원 1인 1계좌

광주은행이 V13을 기원하는 ‘KIA타이거즈 우승 기원 예·적금’을 출시했다.

19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KIA타이거즈의 우승을 기원하며 지역민들과 함께 응원하는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을 오는 7월 말까지 판매한다.

특히 올해는 KIA타이거즈 양현종 선수와 광주은행 고병일 은행장이 1호 가입자로 나서며 V13을 기원했다.

예금은 5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1인 1계좌 가입할 수 있다.

KIA타이거즈의 한 해 성적에 따라 최대 연 0.25% 포인트의 우대 금리 포함 최고 연 3.15% (기본 연 2.90%)를 제공한다.

정규 시즌이나 한국시리즈 우승, 포스트 시즌 진출 등에 따라 우대 금리가 추가된다.

적금은 월 1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



까지 1인 1계좌다. 기존 우대 금리에 팀타움, 챔피언스

필드 방문 인증 등 이벤트 우대 금리가 지 더해 최대 연 1% 포인트를 준다.

지난해는 KIA타이거즈가 12번째 한국 시리즈를 우승하면서 예·적금 판매액이 모두 3만4500계좌에 3천700억원에 달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아구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올해 V13을 기원하기 위해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을 조기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금융니즈와 트렌드를 반영해 지역민의 일상 속에 힘이 되는 금융생활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재만 기자

## 한국산학협동연구, GGM 노조 파업중단 촉구

### “GGM 설립 요건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존중해야”

한국산학협동연구원(키우리)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조합의 파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19일 키우리에 따르면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GGM은 일자리를 찾아 광주를 떠나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시민의 기업으로 5년 전 노사민정의 각 대표들이 모여 체결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는 광주시민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근거로 ‘완성차사 업투자협약서’를 체결하고 총 37개사의 투자자를 모집해 GGM을 설립 한 것”이라며 “노사상생발전협정서는 G

GM의 설립 전제조건이며 GGM경영의 기본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키우리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는 광주시민을 대표해 노사민정 대표들이 모여 광주의 이름으로 체결한 사회적 약속이자 규약으로 GGM 구성원은 누구나 이 협정서를 존중하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GGM 근로자들은 입사할 때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준수하겠다고 서명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지켜 주길 바란다”면서 “GGM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준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언급했다. /안태호 기자

## 목포상의,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 단일 운영기관 선정...6개월 이상 청년 고용시 최대 720만원

목포상공회의소는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2025년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운영기관으로 선정,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빈일자리 업종 기업의 청년에게는 18개월 이상 근무 시 480만원을 추가 지원

한다.

목포상공회의소는 2022년부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 사업은 목포에서 단일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밖에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시니어 인턴십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청년, 중장년, 시니어 등 여러 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송철권 목포상의 사무처장은 “어려

워진 경제로 청년 일자리가 많이 감소한 상황에서, 이 사업은 청년 고용 확대와 취업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년 고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목포상공회의소 (061-242-8581·조사진흥부)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정해선 기자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 약속

RE100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인증캠페인

어때의 마음을 만나다

광주말바우시장

말바우시장은 광주 북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입니다. ‘말바우시장’이라는 이름은 말 발자국 모양의 바위(말바우)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현재는 그말바위는 없어지고 건물들이 들어섰는데 그 건물사이 골목을 중심으로 정자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 광주시 북구청으로부터 인정시장으로 등록되고, 최근 2015년에는 중소기업청 “골목형 특성화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의 계속되는 발전을 보이고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담양, 곡성, 장성, 회성, 순창 등의 주변 시골에서 농민들이 직접 경작한 생산품을 가지고 나와서 물건을 파는 전통적거래 장으로 보다 더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바우시장

귀한 것만 주고 싶은 마음  
하나라도 더 행여주는 마음  
살가운 정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주는 **1석 3조** 혜택을 누리세요~!

<p>혜택1</p> <p>대형마트보다 20%나 저렴!</p>	<p>혜택2</p> <p>온누리상품권 5% 추가 할인!</p>	<p>혜택3</p> <p>사용금액 40% 소득공제!</p>
-----------------------------------	------------------------------------	----------------------------------

착한가격! 신선한 상품! 인심에 더하여 정(情)까지!

시장구분 : 인정시장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190-9  
개설일 : 공식등록일 2005년

· 점포수 : 511개소 (노점상 900여개)  
· 시장면적 : 68,712m2(20,685평)

· 주요취급품목  
- 수산 · 견어물, 농산물, 식품 · 음식점, 축산 · 건강원, 의류 · 기타  
◆말바우시장 상인회 : 062-262-4082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광주광역시북구

광고문의 : 062)650-2099